

『金藏要集經』의 性格과 研究現況

최연식 (목포대학교)

1. 중국 南北朝時代 末期의 대중교화서 『金藏要集經』

『金藏要集經』은 중국 남북조시대 말기에 편찬된, 불교에 대한 믿음과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된 일화들을 모은 불교 일화집이다. 이 책의 제목은 각 傳存本 및 자료에 따라 『金藏要集經』, 『金藏要集論』, 『衆經要集金藏論』, 『金藏論』, 『金藏集』, 『衆經要略集』, 『諸經要略文』, 『金藏經』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래의 제목이 어떠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일단 범어사본의 제목을 따라서 『金藏要集經』으로 부르기로 한다. 제목 중의 ‘金藏’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이 ‘황금[金] 창고[藏]’와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7-361-AM0046)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이다.

불교학리뷰(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7권(2010. 6) 35~59

www.kci.go.kr

같음을 비유한 것이고 ‘衆(諸)經要集’은 여러 경전에서 발취하여 수록한 것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고대와 중세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세 이후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잊혀져 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梵魚寺聖寶博物館 소장의 『金藏要集經』(이하 범어사본)이 소개될 때까지 이러한 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범어사본이 소개된 이후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범어사본과 일본 傳存本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본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다.¹⁾ 하지만 아직도 이 책의 전체적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다행히 최근 敦煌寫本 중에서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傳存本이 확인되고 있고,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이 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사실과 해외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포괄하여 『금장요집경』의 기본적 성격과 체제,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金藏要集經』의 편찬자와 편찬 배경

『금장요집경』의 편찬자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北齊와 北周에서 활약한 道紀 스님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續高僧傳』권30, 雜科聲德篇에 수록된 <高齊鄴下沙門釋道紀傳>에 편찬자인 도기의 생애와 그가 『금장요집경』을 편찬하게 된 상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²⁾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1) 南權熙, 2002 『高麗時代記錄文化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pp.45-64 ; 최연식, 2004 『金藏論』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9 (서울, 불교학연구회)

2) 大正藏 50, 701a-b “釋道紀 未詳氏族 高齊之初 盛弘講說 然以成實見知 門學業成分部結衆 紀用欣然 以教習之功成遺業也 天保年中 秋初立講 紀引衆首 出鄴城南 彼舊門人又引衆入 正於閭側欵爾相值 紀曰 卿從何來 殊無禮也 如何師範 輒抗拒耶 既不傾屈 理宜下道 彼曰 法

같다.

道紀는 北齊初에 수도 鄴城에 머무르며 『成實論』의 강사로 명성이 높았다. 어느 날 제자들을 이끌고 업성을 나오다 다른 강사 무리와 업성 남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 강사는 이전에 자신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이었으므로 도기는 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각기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師弟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겨루어야 한다며 오히려 도기에게 길을 양보하라고 하였다. 이에 도기는 자신이 30여 년 동안 행해온 교학 강의가 제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자신의 문도들을 해산하여 다른 스승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그후 도기는 수도 업성을 떠나 은둔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교화서를 편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7권으로 구성된 『金藏論』(= 『금장요집경』)이었다. 이 책은 그가 여러 경론들을 읽고서 그 중에서 일반 대중들을 교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은 것으로써, 불교적 윤리의 실천과 경전, 불상, 탑 등에 대한 공양 등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鼓競鳴 利建斯在 聲榮之望 師資焉有 紀不答 自爲下道 出于城外 迴首告其屬曰 吾講成實 積三十載 開悟匠導 望有功夫 解本擬行 斯遺誠也 今解而不行 還如根本不解矣 徒失前功 終無後利 往不可追 來猶可及 請並返京 吾當別計 乃退掩房戶 廣讀經論 爲彼士俗而行開化 故其撰集名爲金藏論也 一帙七卷 以類相從 寺塔幡燈之由 經像歸戒之本 具羅一化 大啓福門 論成之後 與同行七人出鄴郊東七里而頓 周匝七里 士女通集 爲講斯論 七日一遍 往必荷擔 不恥微行 經書塔像爲一頭 老母掃帚爲一頭 齊佛境內有塔斯掃 每語人曰 經不云乎 掃僧地如閻浮 不如佛地一掌者 由智田勝也 親供母者 以福與登地菩薩齊也 故其孝性淳深 爲之縫補衣著 食飲 大小便利 必身經理 不許人兼 有或助者 紀曰 吾母也 非他之母 形骸之累並吾身也 有身必苦 何得以苦勞人 所以身爲苦先 幸勿相助 因斯以勵道俗 從者衆矣 又復勸人 奉持八戒 行法社齋 不許屠殺 所期既了 又轉至前 還依上事 周歷行化 數年之間 遶鄴林郊 奉其教者 十室而九 有同侶者 故往候曰 比行化俗 何如道耶 紀曰 彼講可追 今則無悔 既往不咎 知復何言 後遭周氏吞併 玄教同廢 呼嗟俗壤 每崇斯業 及開法始 更廣其門 故彼論初云邪見者是也 所以世傳 何隱論師 造金藏論 終惟紀也 故改名云 然其所出 抄略正文 深可依准 後不測其終”

『금장론』을 완성한 이후, 도기는 다른 7명의 승려들과 함께 鄴城 교외 지역을 7일에 한 차례씩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 하며 교화를 펼쳤다. 특히 그는 교화를 펼치러 마을을 돌아다닐 때에는 늘 경전과 불상, 탑 등과 함께 老母와 빗자루를 메고 다녔는데, 사찰에 들르면 반드시 빗자루로 탑을 청소하였고 老母의 음식과 의복 수발은 물론 대소변 처리까지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염부제만큼 넓은 僧地를 청소하는 것보다 한 손바닥만큼의 佛地를 청소하는 공덕이 더 낫다. 福田의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공양하는 사람에게 는 登地菩薩과 같은 복이 있다(掃僧地如闍浮 不如佛地一掌者 由智田勝也 親供母者 以福與登地菩薩齊也)’는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그러한 행동을 권유하였다. 혹 다른 사람이 노모 돌보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나의 어머니이고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 몸의 고통은 모두 나의 몸의 것이다. 몸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할 수 있는가(吾母也 非他之母 形骸之累 並吾身也 有身必苦 何得以苦勞人)’라며 사양하였다.³⁾ 또한 사람들에게 八戒를 지킬 것을 권하면서 팔계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대중교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미쳤으며, 여러 해 지나지 않아 鄴城 교외지역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드는 집이 열 중의 아홉에 이를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기의 교화에 대하여 승려들 중에는 반발도 있었던 듯, 동료 한 사람은 그에게 이러한 대중교화보다 학문에 힘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기는 이에 대하여 과거의 강의보다 현재의 교화에 만족한다면서 다시 강의할 생각은

3) 道紀의 이러한 효행은 후대에도 승려들 사이에서 효행의 모범으로 여겨졌다. 北宋代의 문헌인 志磐의 『佛祖統紀』(大正藏 49, 218c)와 元照의 『四分律行事鈔資持記』(大正藏 40, 408a), 契崇의 『鐔津文集』(大正藏 52, 662a) 등에 道紀의 효행을 언급하고 있다.

없다고 하였다. 이후 北齊가 北周에 병합되면서 북주의 폐불정책이 미쳤지만 여전히 그러한 교화를 계속하였고, 북주의 폐불정책이 끝난 이후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금장론』의 첫 부분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상이 『속고승전』에 기록되어 있는 편찬자 道紀 스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일본 경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衆經要集金藏論』(이하 경도대본)의 서문에는 이 책의 편찬배경에 대하여 『속고승전』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즉 北齊를 병탄한 北周 황제의 폐불정책으로 승려들이 환속하고 사찰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河隱論師’로 이름을 바꾸고서 은둔하여 살고 있던 ‘記論師’가 불경의 가르침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여러 경론에서 요체를 모아 『금장론』 7권을 편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속고승전』에서는 북제의 멸망 이전에 『금장론』을 편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서문에서는 北齊의 멸망과 폐불정책의 단행이 『금장론』 편찬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록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단정하기 힘들지만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속고승전』의 내용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도대본의 서문에서 북주의 폐불을 『금장론』 편찬의 원인으로 이야기한 것은 폐불 이후에 새로 증보된 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문에서는 도기 스님이 ‘河隱論師’로 이름을 바꾸어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기 스님은 鄴城을 떠나면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속고승전』에서도 당시 일부에서 『금장론』의 편찬자를 何隱論師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도기 스님이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世傳 何隱論師 造金藏論 終惟紀也 故改名云).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장론』 즉 『금장요집경』은 北齊의 수도

鄴城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道紀 스님이 실천이 따르지 않은 채 헛되어 이론만을 추구하는 당시 불교계의 현실에 실망하여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불교적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도기 스님은 불경들의 내용 중에서 불교적 도덕과 윤리를 홍보하는 내용들을 모아 『금장요집경』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이 책을 가지고 민간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불교 윤리를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로 볼 때 도기 스님은 전형적인 ‘大衆教化僧’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장요집경』은 그러한 대중교화를 위한 텍스트로써 특별히 편집되었던 것이다. 흔히 일반 대중에 대한 교화가 단순한 염불이나 기도 등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되는 것과 달리 특별히 많은 경전들에서 내용을 가려 뽑아 불교적 실천 윤리를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도기 스님의 대중교화는 특별한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이는 그가 본래 수십 년에 걸친 교학적 연구를 축적한 학문적, 사상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금장요집경』이 어떠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담긴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3. 『金藏要集經』의 傳存狀況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에만 『금장요집경』이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 敦煌寫本 중에서도 『금장요집경』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完帙本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는 권1과 권2, 일본에는 권1과 권6, 돈황사본에는 권5와 권6 등으로 각각 2권씩 전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권1과 권6이 중복되어서 실제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4권 정도의 분량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분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전해지고 있는 『금장요집경』은 범어사본 및 범어사본과 같은 판

본의 일부 落張本만이 확인되고 있다. 범어사본은 목판본이며 고려중기 후반인 13세기 무렵에 판각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⁴⁾ 범어사본은 권1과 권2가 온전히 남아 있으며, 권1 앞부분에 전체 장별 목차가 수록되어 있어 자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분량은 권1이 21장(41면), 권2가 22장(43면)이고, 1면당 11行 20字이다. 권1에 10개, 권2에 23개 총 33개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落張本은 범어사본 권2 중의 일부에 해당하며, 범어사본과 같은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다. 범어사본과 낙장본 모두 본래 腹藏物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래 어디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에는 모두 3種의 『금장요집경』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헤이안(平安)시대 前期에 筆寫된 것으로 여겨지는 興福寺本이다.⁵⁾ 이 책은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興福寺本 『日本靈異記』(卷子本)의 반대 면에 필사되어 있으며, 首題는 결락되어 확인되지 않지만 끝 부분에는 ‘金藏要集論卷第六’이라는 尾題가 붙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日本靈異記』의 뒷면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쓰여져 있던 『금장요집경』의 뒷면에 후대에 『日本靈異記』를 필사한 것이다.⁶⁾ 『日本靈異記』의 말미에 904년에 필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래 쓰여져 있던 『금장요집경』은 이보다 앞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日本靈異記』의 필사 기록이 후대에 옮겨 적은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확정하기는 힘들다. 尾題에 있는 것처럼 이 책은 『금장요집경』의 제6권에 해당하며, 이는 중국의 『금장요집경』과의 대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

4) 범어사본 및 낙장본을 검토한 남권희 교수에 의하면 版心에 기록되어 있는 刻手들의 이름 중에는 헤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再雕大藏經의 목판 새겨져 있는 刻手의 이름과 동일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

5) 興福寺本은 奈良女子大學附屬圖書館 웹사이트(<http://mahoroba.lib.nara-wu.ac.jp/y14/y14/index.html>)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열람이 가능하다.

6) 大屋徳城, 1934 「興福寺本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解説」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上 (佐伯良謙 編) (京都, 便利堂), p.1

재 남아 있는 분량은 모두 17丈이며, 권6에 해당화는 일화 16편이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홍복사본 다음으로 오래된 것으로는 헤이안시대 末期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지는 大谷大學 博物館 所藏本(이하 대곡대학본)이 있다. 末尾에 法隆寺 승려 覺印이 1134년에 이 책을 검토하였다는 識語가 있는데, 1134년 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시기는 法隆寺一切經의 필사 시기와 가깝고, 형태면에서도 法隆寺一切經과 비슷하여 본래 法隆寺一切經 중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권1과 권2, 2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중 권2는 본래 『금장요집경』이 아닌 책이 『금장요집경』으로 誤認되어 권1과 함께 수록된 것이다.⁷⁾ 권1 부분은 모두 32장(64면)이며, 1면당 7行 20字内外이다. 卷首의 제목은 ‘衆經要集金藏論’이고 表紙와 卷尾의 제목은 ‘金藏論’이다. 권1에 수록된 일화의 내용은 범어사본과 일치하지만 범어사본 앞부분에 있는 전체 목차가 빠져 있고, 대신 범어사본에 없는 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홍복사본과 대곡대학본 이외에 경도대학 도서관에도 별도의 『금장요집경』(이하 경도대학본)이 소장되어 있지만, 이 책은 근세말기 혹은 근대에 대곡대학본을 충실하게 베껴 쓴 것이다. 체제와 내용 모두 대곡대학본과 일치하고 있다.⁸⁾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에는 고문헌의 형태로 전해지는 『금장요집경』은 없지만, 최근에 敦煌寫本 중에서 『금장요집경』의 일부로 볼 수 있는 6개의

7) 本井牧子, 2006 「大谷大學藏『衆經要集金藏論』考 - 卷第二の問題を中心に」 『大谷學報』 85-3 (京都, 大谷大學)

8) 이 책의 내용은 최근 활자화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山路芳範, 1999 「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本『衆經要集金藏論』卷一」 『佛教學會紀要』 7 (京都, 佛敎大學); 山路芳範, 2000 「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本『衆經要集金藏論』卷二」 『佛教學會紀要』 8 (京都, 佛敎大學)

문헌이 확인되었다.⁹⁾ 그런데 이들 중 3개는 본래 하나의 사본이 서로 다른 단편으로 나뉘어진 것들로서, 이들을 본래의 형태대로 합하면 4종의 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敦煌本A(北京1322·러시아Дx0097·北京大學D156) : 현재 ①중국 국가도서관(北京1322)과 ②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페테르부르크지소 동양학연구소(러시아Дx0097), ③북경대학(北京大學D156)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지만 글자의 형태나 종이의 재질, 체제 등으로 볼 때 본래 하나의 문헌이 나뉘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7-8세기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분량은 ①이 18丈, ②가 1丈, ③이 15丈이며, 사이에 약간의 결락은 있지만 ①-②-③의 순서대로 연결된다. 내용은 『금장요집경』 권5와 권6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①의 앞부분에 있었을 권5의 처음 부분은 결락되어 있다. 권6의 시작부분에 '藏集卷第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金藏集'으로 추정된다. 권이 끝나는 부분에는 특별히 제목이 쓰여 있지 않다. ①에는 권5에 해당하는 일화 23편과 권6의 첫 번째 일화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권6의 시작 부분에는 권6에 수록된 일화 전체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②에는 권6의 세 번째 일화 뒷부분과 네 번째 일화의 시작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③에는 권6의 네 번째 일화부터 마지막 일화까지 모두 13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敦煌本B :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北京8407)에 소장되어 있으며 앞뒤가 결락된 결락본이다. 돈황본A와 마찬가지로 7-8세기의 사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록된 내용은 돈황본A와 마찬가지로 『금장요집경』 권5와 권6에 해

9) 荒見泰史, 2004 『敦煌文學與日本說話文學 - 新發現北京本『衆經要集金藏論』의 價値』 『佛敎文學研究論集』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荒見泰史, 2006 『中國國家圖書館藏敦煌寫本, 北京8407(鳥16)『衆經要集金藏論』校錄』 『西北出土文獻研究』 3 (新瀉, 西北出土文獻研究會); 宮井里佳·本井牧子, 2006 『『金藏論』敦煌本翻刻 - 北京1322·러시아Дx0097·北京大學D156』 『文藝論叢』 67; 宮井里佳·本井牧子, 2007 『『金藏論』 - 新出의 敦煌本と卷五·卷六의 問題를 中心に』 『文藝論叢』 68

당하지만, 권을 나누지는 않았다. 전체 12丈으로 돈황본A보다 분량이 적으며, 돈황본A의 권5의 네 번째 일화부터 권6의 세 번째 일화까지 모두 23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권5의 마지막 일화는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으며, 권6의 세 번째 일화도 중간 부분에서 끝나고 있다. 앞뒤가 결락되어 원래의 제목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敦煌本C : 영국 대영도서관 스타인콜렉션(S3962)에 들어있다. 분량은 전체 12丈이며, 내용은 돈황본A·B의 권5부분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끝부분에 ‘衆經要略集卷第五’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권5의 후반부 14편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당나라 때 사본으로 생각되고 있다.¹⁰⁾

敦煌本D : 돈황본C와 마찬가지로 영국 대영도서관 스타인콜렉션(S4654)에 들어 있다. 분량은 1丈에 불과하며,¹¹⁾ 『금장요집경』 권6의 목록 일부와 권6의 첫 번째 일화 앞부분이 쓰여 있다. 뒷부분에 공백이 있음에도 일화가 중간에 끝나 있는데, 이로 보아 쓰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당나라 때 사본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금장요집경』 자체는 아니지만 『금장요집경』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내용들이 宋나라 때 편찬된 『義楚六帖』과 『大部補注』에 보이고 있다. 『義楚六帖』에는 ‘金藏(經)云’ 혹은 ‘出金藏經’ 등으로 표현하여 『금장요집경』에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는 54 항목을 비롯하여,¹²⁾ 비록 ‘金藏經’에서

10) S3962는 이 『금장요집경』 권5와 『화엄경』의 주석서가 이어져 있으며, 뒷면에는 『四分僧戒本』이 쓰여 있다. 기존의 『금장요집경』과 『화엄경』 주석서의 뒷면을 이용하여 후대에 『四分僧戒本』을 필사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1) S4654는 여러 단편들을 이어 붙여 만들어진 문헌으로, 『금장요집경』도 그 중 하나이다.

12) 山路芳範, 1994 『『義楚六帖』引用典籍考 三 - 『金藏經』(衆經要略集金藏論)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42-2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研究會) pp.51-52 ; 山路芳範, 1997 『『金藏經』と『今昔物語集』について』 『京都文教研究紀要』 5 (京都, 京都文教女子中學高等學校) pp.2-7. 山路芳範氏は『義楚六帖』에서 出典을 金藏經으로 명확히 밝힌 55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37번 항목은 내용상 金藏經으로부터의 인용으로 보기 힘들다.

인용하였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 『금장요집경』에서 인용하였음이 분명한 내용 3 항목¹³⁾ 등 모두 57 항목이 인용되고 있다. 인용문은 100자가 넘는 긴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4-50자 내외의 짧은 내용으로 『금장요집경』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금장요집경』의 하나의 일화가 두 항목으로 나뉘어 인용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大部補注』에서는 湛然의 『法華文句記』에 언급된 ‘金藏經’을 해설하는 가운데 『금장요집경』에 수록되었던 일화 하나를 인용하고 있다.¹⁴⁾ 인용된 내용은 177자의 분량이며, 『금장요집경』에 수록되었던 일화를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4. 『金藏要集經』의 구성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여러 종의 『금장요집경』이 전하고 있지만, 전해지는 책을 모두 합하여도 完帙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의 구성과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다행히 범어사본의 앞부분에 『금장요집경』을 구성하고 있는 22개 緣(篇에 해당)의 이름과 순서를 알려주는 목차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범어사본 목차에 기록된 22개 緣의 구체적 명칭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邪見緣第一, 殺害緣第二, 罵詈緣第三, 懺悔緣第四, 稱佛緣第五, 觀像緣第六, 聽法緣第七, 求法緣第八, 戒緣第九, 食緣第十, 業緣第十一, 布施

13) 山路芳範(1997) pp.11-13. 이 항목들은 실제로 敦煌寫本 중의 『금장요집경』의 제5권의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14) 山路芳範(1997) p.2에 인용되어 있다. 원문은 『新纂大日本續藏經』 제28권 212b.

15) 山路芳範(1997)에 수록된 『義楚六帖』에 인용된 항목 중 53번은 이 『大部補注』에 인용된 일화를 61자로 축약한 것이다.

緣第十二, 慳緣第十三, 塔緣第十四, 像緣第十五, 香花緣第十六, 燈緣第十七, 幡盖緣第十八, 出家緣第十九, 袈裟緣第二十, 孝養緣第二十一, 雜緣第二十二

그런데 본래의 『금장요집경』이 이상의 22개 緣(篇)만으로 구성되었던 것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곡대학본과 경도대학본에 수록되어 있는 서문에서는 이 책이 모두 24章, 즉 24개의 緣(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만일에 이 기록이 필사상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에 전해진 책에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과는 달리 2개의 장이 더 있었던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흥복사본과 최근에 확인된 돈황사본들의 경우 수록된 緣(篇)의 編次가 범어사본의 목차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돈황사본들의 경우 범어사본에 14번째 緣(篇)으로 되어 있는 塔緣의 篇次가 ‘第十五’이고, 그 이하의 像緣, 香花緣, 燈緣, 幡盖緣, 出家緣, 袈裟緣, 孝養緣 등의 篇次도 모두 범어사본보다 하나씩 뒤로 밀려나 있다. 흥복사본의 경우 편차가 확인되는 것은 出家緣과 孝養緣뿐이지만 그 편차는 돈황사본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일본과 돈황지역에서 유통되었던 『금장요집경』은 범어사본과 편차가 달랐으며, 아마도 대곡대학본 등의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4緣(篇)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장요집경』에는 22개의 緣(篇)으로 구성된 책과 24개의 緣(篇)으로 구성된 책의 두 종류의 異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緣(篇)本과 24緣(篇)本の 차이는 아마도 둘 중의 하나가 후대의 유통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 중 일부를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역으로 다른 하나가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 증보되거나 혹은 하나의 편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체제상의 변화를 겪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어느 쪽이 맞

16) “都合今有九卷 有二十四章 有百九十二條”

을지 알 수 없지만 일본 전래본과 돈황사본이 연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미루어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속고승전』의 도기 스님 전기 중의 “후에 北周에 (北齊가) 병합되면서 佛法의 가르침이 (北周와) 마찬가지로 끊어지게 되었다. (중략) 불법을 펴는 것이 시작됨에 미처서 다시 그 내용을 넓혔으니 그 책의 첫머리에 〈邪見(緣)〉을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다. (後遭周氏吞併 玄教同廢 … 及開法始 更廣其門 故彼論初云 邪見者是也)”라는 내용으로 볼 때 후자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北周의 폐불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본래 22緣(篇)이었던 것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24緣(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고승전』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는 〈邪見緣〉은 범어사본에도 첫 번째 편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범어사본의 내용을 폐불 이전에 편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한편 범어사본의 전체 목차를 일본 흥복사본이나 돈황본들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금장요집경』은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복사본과 돈황본들의 권6에 22번째 緣(篇)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나머지 2개의 緣(篇)은 1권에 수록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佛典目錄들에서도 『금장요집경』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은 주로 7권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⁷⁾ 그런데 대곡대학본 등의 서문에서는 본래 7권이었던 책을 다시 간행할 때에 9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에 의한다면 7권 이외에 9권으로 편집된 책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록된 일화의 수에 있어서도 서문에서는 192항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책 4권에 수록된 일화의 숫자 62항목에 비하여 훨씬 많다. 謄寫가 아니라면 9권본은 현재 전해지는 7권본들에 훨씬 많

17) 宮井里佳, 2007 「『金藏論』- 書名をめぐる一考察」 『埼玉工業大學人間社會學部紀要』5 (埼玉, 埼玉工業大學), p.7

은 숫자의 일화들을 추가하여 증보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책들의 내용과 범어사본의 목차를 토대로 『금장요집경』의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卷次	篇名	因緣譚 및 出典	傳存狀況	『義楚六帖』 引用文과의 대응관계 ¹⁸⁾
卷1	邪見緣 第一 (3항목)	迦葉爲婢肆王說邪見過惡譬喻緣 [中阿含經] 須達家老婢過去起邪見得惡報緣 [觀佛三昧經] 邪見毀滅三寶得惡報緣 [薩遮尼乾經]	梵魚寺本·大 谷大學本·京 都大學本	不來如廁
	殺害緣 第二 (7항목)	釋種過去殺魚今爲琉璃王所滅緣 [增一阿含經] 迦留陀夷等過去殺羊得惡報緣 [鼻那耶經] 毗舍離三十二子過去殺牛得惡報緣 [賢愚經] 微妙過去妬殺小婦子得惡報緣 [賢愚經] 宿大多過去殺辟支佛得惡報緣 [阿育王經] 師質過去斫辟支佛得惡報緣 [菩薩本行經] 駒那羅過去壞鹿眼得惡報緣 [阿育王經]		羊被截足 共殺之報 針兒致死
卷2	罵詈緣 第三 (5항목)	罵精進持戒比丘得惡報緣 [出曜經] 閻波羅過去罵比丘得惡報緣 [百緣經] 迦毗梨罵比丘獸頭得惡報緣 [賢愚經] 富那奇過去罵比丘作奴得惡報緣 [賢愚經] 金剛醜女過去罵辟支佛得醜報緣 [賢愚經略]	梵魚寺本	金剛醜女
	懺悔緣 第四 (3항목)	月氏國王與三智人作親友緣 [雜寶藏經] 化生王子過去香塗塔懺悔緣 [百緣經] 佛說陀羅尼懺悔諸罪緣 [七佛神呪經]		
	稱佛緣 第五 (3항목)	國王殺父至心稱佛得脫地獄緣 [譬喻經] 五百釋子稱佛生天緣 [觀佛三昧經] 財首菩薩過去稱佛得值佛緣 [觀佛三昧經]		見似灰人 首財入塔
	觀像緣	十方佛過去觀像讚歎成佛緣 [觀佛三昧經]		師資成佛

	第六 (3항목)	四方佛過去觀像成佛緣 [觀佛三昧經] 釋迦佛過去觀像成佛緣 [迦葉經]		入塔滅罪 精進童子
	聽法緣 第七 (5항목)	衆生聽法得利益緣 [付法藏經] 月光詣寺聽經得生天緣 [百緣經] 鸚鵡聞四諦名得生天緣 [賢愚經] 蛤聽法生天緣 [喜見律毗婆娑] 鳥聞比丘誦經生天緣 [賢愚經]		聞法生天 月光生天 鸚鵡聞法 蛤乘宮殿
	求法緣 第八 (4항목)	女人至心求法得道緣 [雜寶藏經] 釋迦過去爲八字捨身緣 [涅槃經] 釋迦過去爲法賣身緣 [涅槃經] 釋迦過去爲法剝皮爲紙緣 [없음(涅槃經?)]		半偈捨身 剝皮爲紙
卷3 · 卷4	戒緣第九·食緣第十·業緣第十一·布施緣第十二·慳緣第十三·○緣第十四(?)	미상	전해지지 않음	
卷5	塔緣 第十五 (9항목?)	제목미상緣 金地國王過去治故塔得報緣 [賢愚經] 蘇曼女十子過去治故塔得報緣 [賢愚經] 金色過去治故塔得金色身緣 [百緣經] 婆多竭梨過去掃塔得報緣 [菩薩本行經] 功德意掃塔香燈供養得生天緣 [百緣經] 婦憶夫掃塔治寺得生天緣 [雜寶藏經] 老比丘由掃塔得道緣 [分別功德論] 寶手過去金錢着塔下得報緣 [百緣經]	敦煌本	獼猴學僧 金地同緣 治塔同生 兒生金色 被殺生天 寶手金錢
	像緣 第十六 (5항목)	若人作佛像得報緣 [優填王作佛形像經] 難陀過去作辟支佛像得報緣 [智度論] 迦葉夫婦過去金薄像面得報緣 [付法藏經] 燈指過去治像指得報緣 [燈指因緣經] 象護過去治塔白象得報緣 [賢愚經]		
	香花緣 ¹⁹⁾ 第十七 (5항목)	梅檀香過去香塗塔地得報緣 [百緣經] 同邑百人過去香花供養塔得報緣 [百緣經] 園監持王花散佛得授記緣 [阿闍世王受決經]		

		華天過去以花散僧得報緣 [賢愚經] 威德過去佛塔中萎花塵得報緣 [百緣經]		
	燈緣 第十八 (4항목)	聖友供牟尼燃燈供養佛得成佛緣 [賢愚經] 貧女難陀燃燈供養佛得授記緣 [賢愚經] 女人塔中燃燈供養得生天緣 [譬喻經] 阿那律過去正佛前燈得天眼緣 [譬喻經]		
卷6	幡蓋緣 第十九 (4항목)	波多迦過去造幡懸塔上得報緣 [百緣經] 放羊人以草蓋覆佛得報緣 [菩薩本行經] 寶蓋過去以覆佛塔得報緣 [百緣經] 善花王以蓋覆辟支佛得報緣 [增一阿含經]	敦煌本·興福 寺本	長幡在頂 草蓋勝報 更作輪王·施 蓋之福
	出家緣 第二十 (5항목)	障人出家得惡報緣 [付法藏經] 在家過患出家功德緣 [郁伽長者所問經] 福增年老出家得道緣 [譬喻經] 優陀羨王婦一日出家得生天緣 [雜寶藏經] 鞞羅羨那一日出家得生天緣 [出家功德經]		烏障出家 蟲生自尸 一日生天
	袈裟緣 第二十一 (4항목)	袈裟有功德緣 [悲華經] 用着袈裟得免金翅鳥緣 [僧祇律] 堅誓師子敬着袈裟人得報緣 [賢愚經] 打罵着袈裟人得罪報緣 [月藏經]		不得不敬
	孝養緣 第二十二 (4항목 ²⁰⁾)	鸚鵡孝養盲父母得成佛緣 [雜寶藏經] 須闍提太子身肉供養父母得成佛緣 [報恩經] 慈童女孝養得現報緣 [雜寶藏經] 失恩者得現報緣 [大論]		孝養取殺
卷7	□□緣第二十 三·雜緣 第二十四	미상	전해지지 않음	

18) 『義楚六帖』에 인용된 내용 중 億耳大施·持戒爲王·三品十種·持戒坐禪·齋得現報·謗聖兄弟·被誑墮坑·比丘賊主·兄爲與選·滴水寄海·爲一盃酒·執珠而生·密無生死·金猫之錢·便利遣人·補放勝新·不來如側·無價寶床·針兒致死·金瓶之印·牛變之災 등은 현재 전해지는 『금강요집경』에서는 대응되는 일화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전해지지 않는 일화들의 인용일 것이다.

19) 敦煌本에는 香緣으로 되어 있음.

20) 네 번째 항목인 失恩者得現報緣은 둔황본들에는 없고 興福寺本에만 들어 있다. 내용상으로

5. 『金藏要集經』의 佛敎史的 위치

『금장요집경』의 각 緣(篇)의 명칭 그리고 각 항목들의 구체적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앙과 불교적인 윤리, 도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불경으로부터 모범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비록 불경 속의 이야기들이기는 하지만 불교를 신앙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며 부처를 상징하는 불상과 탑을 공양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成佛하였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교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락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 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착한 일을 한 결과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얻게 되었다는 불교의 因果應報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 불교의 핵심사상을 설명하지 않고 善惡의 업보만을 이야기하는 낮은 수준의 불교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책의 편찬배경을 살펴볼 때 단순히 그렇게 평가하기만은 힘들다. 이 책은 『속고승전』에 기록된 것처럼 30년 이상 『成實論』을 강의하며 교학을 연구하였던 인물이 자신이 가르친 문하생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행위를 경험한 후에 기존의 교학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진정한 불교적 가르침을 추구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남북조시대 불교계의 발전 속에서 불교 이론에 대한 연구가 전성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론 자체에 대한 탐구만이 중시되어 佛敎 즉 부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망각되는 현실 속에서 『금장요집경』의 내용은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타개하기 위한

도 孝養과 관계 없어서 다른 緣(篇)의 내용이 잘못 끼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宮井里佳·本井牧子, 2007 「『金藏論』- 新出の敦煌本と卷五·卷六の問題を中心に」 『文藝論叢』 68, pp. 341-343)

대책으로써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편찬자인 道紀가 자신에게 그러한 통속적인 교화보다 교학연구를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승려에게 지금의 대중교화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교학 연구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교학 연구가 득세하는 당시 불교계의 현실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하려 한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道紀가 생활 속에서 불교윤리의 실천을 중시했음은 그가 대중들을 교화하면서 재가불자들의 생활규범인 八戒의 실천을 강조하고, 팔계를 지키는 기간[八關齋] 동안에 육식을 엄격히 금지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장요집경』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적 실천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불경에 나타난 예화들을 모은 일화집인데 이러한 종류의 책으로는 현존하는 중국 불교 最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장요집경』과 마찬가지로 경전 중에서 예화들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는 이 책에 앞서 梁代에 편찬된 『經律異相』과 그 영향을 받아 唐代에 편찬된 『諸經要集』이나 『法苑珠林』과 같은 책들이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은 불교의 이론 체계 혹은 석가의 일생과 관련된 佛敎史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교학적 성격이 강한 책들이었다. 즉 이들은 『금장요집경』보다 분량이 훨씬 방대할 뿐 아니라 석가의 생애 순서 혹은 교리적 범주에 따라 편집되었고, 단순한 일화가 아닌 이론적인 내용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들의 내용 중 일부는 일반 대중들을 교화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금장요집경』과 같이 순수하게 일반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금장요집경』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을 모아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윤리를 쉽게 전하고 이를 생활에서 곧바로 실천하게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책들은 승려나 지식인들과 같은 비교적 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

교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장요집경』은 중국 불교계에서 만들어진 일화집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금장요집경』의 편찬과 이를 이용한 대중 교화는 唐代에 성행한 불교 설화들을 講唱하면서 대중들을 교화하는 풍조의 선구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초기의 설화집들에는 『금장요집경』의 일화들을 토대로 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중들에 대한 설법과 교화에 이 책이 널리 이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이와 함께 『금장요집경』 중에서 특별히 孝養緣(篇)을 설정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것도 주목되는 모습이다. 『속고승전』에서 보듯 道紀는 老母를 직접 업고 다니면서 직접 음식과 대소변의 수발까지 할 정도로 효도에 적극적이었는데, 孝養緣의 설정은 이러한 그의 태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양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불경에서 추출된 이야기들이라는 점에서 불교를 신앙하고 부처를 공양함으로써 부모가 현생 혹은 내생의 복락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았을까 생각된다.²²⁾ 이처럼 중국 생활 윤리의 기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효양을 불교 윤리로 받아들임으로써 불교를 생활 윤리로 확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21) 일본 초기의 설화집에 수록된 설화와 『금장요집경』 일화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

雨宮尙治, 1943 「『衆經要集金藏論』管見」 『國語と國文學』(東京, 東京帝國大學國文學研究室); 今野達, 1983 「『衆經要集金藏論』と今昔物語集」 『國語國文』 52-4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本井牧子, 2008 「『金藏論』と『今昔物語集』-『金藏論』敦煌本と『今昔物語集』卷二との関連を中心に」 『國語國文』 77-8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22) 『三國遺事』 孝善篇에 수록된 이야기들도 효도를 전면에 내걸고 있지만 그 효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出家 및 사찰의 창건 등과 같이 불교를 신앙하고 佛事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梵魚寺本 『金藏要集經』에 수록된 일화들의 내용

마지막으로 국내에 전해지고 있는 범어사본 『금장요집경』에 수록된 일화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 〈邪見緣第一〉

- ① 迦葉爲婢肆王說邪見過惡譬喻緣: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來世를 이야기해 준 경우가 없으므로 내세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왕에 대해 구마라가섭이 처형당하는 죄수 및 더러운 곳에 있다가 좋은 곳으로 옮겨간 사람의 비유를 들어 해명함. 여전히 국왕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자 麻를 지고 가다가 중간에 銀과 金을 발견하고서 이를 바뀐 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 국왕을 설득함.
- ② 須達家老婢過去起邪見得惡報緣: 부처를 비방하는 수달장자 집의 노비에게 부처가 多身으로 현현하여 구제함. 노비는 전생에 왕자로 출가하였지만 교만하여 스승의 대승 가르침을 비방한 죄로 지옥, 장애인, 노비 등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고 함.
- ③ 邪見毀滅三寶得惡報緣: 다섯 근본죄(佛寺 파괴, 佛法 비방, 승려들을 노역시키거나 환속시키는 일, 五逆罪, 不善한 행위)의 업보에 대하여 이야기함.

〈殺害緣第二〉

- ① 釋種過去殺魚今爲琉璃王所滅緣: 어머니가 석가족 노비였던 파사닉왕의 아들이 자신을 모욕한 석가족을 몰살시킨 것에 대하여 부처는 석가족이 前世에 捕魚한 업보라고 이야기함. (일부 내용은 興起行經, 法句(譬)喻經에도 나온다고 함)
- ② 迦留陀夷等過去殺羊得惡報緣: 羅漢이 도적들에게 살해당하였는데 이

는 과거 天祠主로서 羊을 죽인 업보라면서 羅漢이 되어도 과거의 업보는 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함.

- ③ 毗舍離三十二子過去殺牛得惡報緣: 32명의 아들이 국왕에게 살해당하는데 전생에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함.
- ④ 微妙過去妬殺小婦子得惡報緣: 妾의 자식을 죽인 업보로 다음 생에 연달아 남편과 아이들을 잃는 운명에 처하게 됨.
- ⑤ 宿大多過去殺辟支佛得惡報緣: 불교를 비난하던 왕의 동생이 참회하고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지만 야차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는 전생에 사냥군으로 사슴을 잡으려다 辟支佛을 죽인 과보 때문이라고 함.
- ⑥ 師質過去斫辟支佛得惡報緣: 동생에게 배신당한 형에 대하여 전생에 辟支佛의 팔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함.
- ⑦ 駒那羅過去壞鹿眼得惡報緣: 눈이 아름다운 왕자가 왕비의 계략으로 눈을 도려내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전생에 사냥군으로 500마리 사슴의 눈을 파낸 업보 때문이라고 함.

권2: 〈罵罵緣第三〉

- ① 罵精進持戒比丘得惡報緣: 게으른 승려가 정진하는 비구를 비난한 과보로 흉측한 아귀가 됨.
- ② 閻波羅過去罵比丘得惡報緣: 태어나면서부터 糞尿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는 전생에 국왕이 건립한 사찰의 寺主로서 아라한이 밭에 향유 바르는 것을 비방한 과보라고 함.
- ③ 迦毗梨罵比丘獸頭得惡報緣: 머리가 백 개 달린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물고기는 지혜를 훔치기 위해 거짓으로 승려가 되었던 사람이 논쟁에서 불리하게 되면 상대방을 동물로 부르며 욕한 업보로 이렇게 되었다고 함.
- ④ 富那奇過去罵比丘作奴得惡報緣: 長者의 아들로서 比丘들을 욕한 사

람이 후에 노비로 태어나게 됨.

- ⑤ 金剛醜女過去罵辟支佛得醜報緣: 파사닉왕의 딸이 매우 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고생하였는데, 이는 전생에 벽지불을 못생겼다고 흥분 업보라고 함.

〈懺悔緣第四〉

- ① 月氏國王與三智人作親友緣: 많은 복덕을 누린 국왕이 자기의 복이 다 하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참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하들은 참회로 잘못을 가릴 수 없다고 함. 이에 국왕은 끓는 물에 한편으로 찬물을 붓고 한편으로 불을 끄면 물을 식힐 수 있는 것처럼 참회하고 선행을 많이 행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함.
- ② 化生王子過去香塗塔懺悔緣: 佛塔 속에서 꽃을 흠쳐 기녀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병이 들어 잘못을 참회하고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구한 梅檀香을 佛塔에 공양한 공덕으로 다른 세계의 연꽃 속에서 태어나 辟支佛果를 얻음.
- ③ 佛說陀羅尼懺悔諸罪緣: 釋迦가 金照嚩陀羅尼를 설한 후 중생들이 이를 들으면 도리천에 왕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稱佛緣第五〉

- ① 國王殺父至心稱佛得脫地獄緣: 7일밖에 목숨이 남지 않은 사람이 그 사이에 南無佛을 稱한 공덕으로 지옥에 끌려갔지만 그곳 중생들과 함께 해방됨.
- ② 五百釋子稱佛生天緣: 稱佛 공덕으로 지옥을 벗어났지만 과거에 邪見을 가진 적이 있어 부처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함.
- ③ 財首菩薩過去稱佛得值佛緣: 탑 속의 佛像을 보고 발심하여 念佛한 공덕으로 꿈 속에서 부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됨.

〈觀像緣第六〉

- ① 十方佛過去觀像讚歎成佛緣: 탑 속의 불상에 예배한 공덕으로 스승과 9인의 제자가 모두 성불하여 十方佛이 됨.
- ② 四方佛過去觀像成佛緣: 탑 속의 불상에 예배한 공덕으로 4인이 모두 성불하여 四方佛이 됨.
- ③ 釋迦佛過去觀像成佛緣: 석가가 전생에 그림으로 된 부처의 모습을 보고서 發心하여 후에 成佛을 이루게 되었음.

〈聽法緣第七〉

- ① 衆生聽法得利益緣: 사나웠던 코끼리가 절 근처에서 설법을 들은 후 온순해졌지만 다시 도살장 근처에 두자 본래대로 사나워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一切衆生 志性無定’을 이야기함.
- ② 月光詣寺聽經得生天緣: 사찰에서 계송 한 구절을 들은 공덕으로 生天하게 됨.
- ③ 鸚鵡聞四諦名得生天緣: 앵무새가 설법을 듣고서 生天하게 됨.
- ④ 蛤聽法生天緣: 조개가 설법을 듣고서 生天하게 됨.
- ⑤ 鳥聞比丘誦經生天緣: 새가 설법을 듣고서 生天하게 됨.

〈求法緣第八〉

- ① 女人至心求法得道緣: 신도의 설법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한 승려가 분발하여 得道하게 됨.
- ② 釋迦過去爲八字捨身緣: 석가가 전생에 雪山에서 고행할 때 야차로부터 ‘諸行無常 是生滅法’과 ‘生滅滅已 寂滅爲樂’의 계송을 듣기 위해 자기 몸을 바쳤으며, 그 공덕으로 미륵보다 20劫 먼저 성불하게 됨.
- ③ 釋迦過去爲法賣身緣: 석가가 전생에 부처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팔.

- ④ 釋迦過去爲法剝皮爲紙緣: 석가가 전생에 자신의 가죽, 뼈, 피를 바쳐서 부처의 계승을 기록하려 하였던 일이 있음.

참 고 문 헌

- 南權熙, 2002 『高麗時代記錄文化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 崔鉉植, 2004 「『金藏論』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9 (서울, 불교학연구회)
- 大屋徳城, 1934 「興福寺本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解説」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上 (佐伯良謙 編) (京都, 便利堂)
- 雨宮尙治, 1943 「『衆經要集金藏論』 管見」 『國語と國文學』 (東京, 東京帝國大學國文學研究室)
- 今野達, 1983 「衆經要集金藏論と今昔物語集」 『國語國文』 52-4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 山路芳範, 1994 「『義楚六帖』 引用典籍考 三 - 『金藏經』 (衆經要集金藏論) 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42-2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 山路芳範, 1997 「『金藏經』と『今昔物語集』について」 『京都文教研究紀要』 5 (京都, 京都文教女子中學高等學校)
- 山路芳範, 1999 「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本 『衆經要集金藏論』 卷一」 『佛教學會紀要』 7 (京都, 佛教大學)
- 山路芳範, 2000 「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本 『衆經要集金藏論』 卷二」 『佛教學會紀要』 8 (京都, 佛教大學)
- 宮井里佳, 2003 「道紀傳について - 中國佛教の類書の研究の基礎作業として」 『埼玉工業大學人間社會學部紀要』 1 (埼玉, 埼玉工業大學)
- 宮井里佳, 2006 「敦煌諸寫本による『金藏論』 卷五, 六の解明」 『印度學佛教

- 學研究』55-1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 宮井里佳, 2007 「『金藏論』- 書名をめぐる一考察」『埼玉工業大學人間社會學部紀要』5 (埼玉, 埼玉工業大學)
- 宮井里佳, 2007 「中國佛教類書と『金藏論』」『佛教文獻と文學』(日臺共同ワークショップの記録) (東京,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
- 本井牧子, 2006 「大谷大學藏『衆經要集金藏論』考 - 卷第二の問題を中心に」『大谷學報』85-3 (京都, 大谷大學)
- 本井牧子, 2007 「日本における『金藏論』」(2007年日臺共同ワークショップ 發表文) (東京,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
- MOTOI Makiko, 2007 “An Examin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Jinzanglun* - Reconstructing Its Composition with the Help of Dunhuang Manuscripts and the *Yichuliutie* -” (ICANAS-38 Ankara(Turkey) 발표문)
- 本井牧子, 2008 「『金藏論』と『今昔物語集』- 『金藏論』敦煌本と『今昔物語集』卷二との関連を中心に」『國語國文』77-8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 宮井里佳・本井牧子, 2006 「『金藏論』敦煌本翻刻 - 北京1322・俄Дx0097・北京大學D156」『文藝論叢』67
- 宮井里佳・本井牧子, 2007 「『金藏論』- 新出の敦煌本と卷五・卷六の問題を中心に」『文藝論叢』68
- 宮井里佳・本井牧子, 2008 『中國北朝後半期の佛教の類書『金藏論』研究』(平成17年度-平成19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荒見泰史, 2004 「敦煌文學與日本說話文學 - 新發現北京本『衆經要集金藏論』的價值」『佛教文學研究論集』(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荒見泰史, 2006 「中國國家圖書館藏敦煌寫本, 北京8407(鳥16)『衆經要集金藏論』校錄」『西北出土文獻研究』3 (新潟, 西北出土文獻研究會)

Abstract

On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Jinzang yaojijing*

CHOE, Yeonshik

Mokpo Natl University

Jinzang yaojijing (*Jinzang lun*) is an anthology of the tales of derived from several Buddhist Sutras. The subjects of the tales are the conversion into Buddhism, the examples of punitive justice, and paying respect to Buddha and his statues and stupas.

The editor of this book, Daoji was an famous scholar majoring in *Satyasiddhi-sastra* during Bei Qi period, but after an incident which brought him a great disappointment at the atmosphere around the Buddhists who were vainly indulged in studying the Buddhist theories without practicing it in their daily lives he retired from the capital and edited this book. On finishing this book he began to making a round of villages outside the capital and read the tales of the book to the common people. By this he preached the Buddhist teachings to the common people and guided them to live Buddhist's lives by keeping the Buddhist moral

and ethics. There is also an emphasis on the filial piety and it might be one of the earliest example of the integration of Chinese important moral into Buddhist teachings.

There remain several versions of this book in Korea, Japan and China. But all of them are incomplete. According to the old bibliographies the *Jinzang yaojijing* was in 7 volumes. The remains are only 4 volumes, volume 1, 2, 5 and 6. Korean version, 13th century woodblock print kept at Beom'eo-sa temple, contain volume 1 and 2. Japanese versions, 3 handcopy manuscripts kept at Kofukuji temple and University libraries, contain volume 1 and 6. Chinese versions, several fractions from 4 handcopy manuscripts found at Dunhuang cave, contain volume 5 and 6.

Among the remained versions the Beom'eo-sa has special importance. At the beginning of it the table of chapters is preserved. This table present the name of every chapter. Ant by this table we can also figure out the total composition of *Jinzang yaojijing*.

Key Words: *Jinzang yaojijing* (*Jinzang lun*), Daoji, Bei-Qi buddhism, Beom'eo-sa version

2010년 5월 11일 투고
2010년 6월 4일 심사완료